

구비설화 속 노구 업의 형상화와 의미*

김국희**

〈차례〉

1. 서론
2. 조선 후기 노구와 노구 업의 세태
3. 설화 속 노구 업의 형상화 양상
4. 설화 속 노구에 대한 인식과 의미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설화 ‘단명할 사람 배필 잘 얻어 살아가기’ 형과, ‘쫓겨난 며느리와 솥구이 총각’ 형을 텍스트로 하여, 주인공의 결연에 조력자로 등장하는 노구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를 분석했다. 설화에서 노구는 주인공이 운명을 극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남녀의 야합을 주선하는 노구 업을 하고 있다. ‘단명할 사람 배필 잘 얻어 살아가기’에서는 단명의 위기에 처한 주인공이 연명할 수 있도록 정승집 딸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쫓겨난 며느리와 솥구이 총각’형에서는 양반가에서 쫓겨난 며느리와 솥구이 총각의 연분을 매개하는 위치에 있다. 설화에서 주인공들이 처한 고난은 타고난 운명과 사회적 모순에 따른 결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를 극복하도록 돕는 경우 노구는 신이한 존재로 인식되지만, 후자를 극복하도록 돕는 경우 노구는 현실적이고 세태를 반영하는 인물로 인식된다.

조선 후기 노구 업을 행한 자는 형추와 도배의 무거운 벌을 받았다. 지배층의 입장에서 노구 업은 표면적으로 강상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이면적으로 신분적 위계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였으므로 강한 규제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서민들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다.(NRF2021S1A5B5A17049646)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에게 노구는 생계 수단이 없는 이웃으로, 그가 주선한 신분을 넘나드는 야합은 계급적 일탈의 흥밋거리로 여겨졌다고 본다. 게다가 설화 속에서 노구는 현실적인 인물보다 신적인 인물로 의미 있게 존재하는데, 이는 민간에서 할미신앙이 유효한 점과 연관된다. 한편 사회적 소수자인 전승자들에게 노구는 처벌의 대상이 아닌 사회·경제적 공감을 불러오는 존재로 나타나는데, 이는 설화 속 주인공과 노구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구에 대한 지배담론을 벗어나기는 힘들어 노구의 활약은 축소되고, 업은 우연이나 연분으로 미화되어 있다.

주제어 노구, 노구 업, 단명, 야합, 숲구이 총각, 쫓겨난 백정 딸

1. 서론

노구는 사서, 야담, 소설 등 다양한 장르에서 서사 전개의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 주목받아 왔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연구에서는 노구를 왕권과 관련된 신모(神母)적 존재, 양육신, 토착 신앙의 담당자로 보았고,¹⁾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으로 범위를 넓혀서는 왕가의 양육자, 남녀결연의 중개자, 정치적 간언자로 나누어 시대적 변이를 고찰했다.²⁾ 문학의 경우 야담에서는 노구가 요귀를 가리키거나 술 및 유희의 공간과 관련된 늙은 여성임을 밝혔고,³⁾ 조선 후기 애정소설 연구에서는

-
- 1) 최광식, 「삼국사기 소개 노구의 성격」, 『사총』 25, 고대사학회, 1981, 1~23쪽; 송화섭, 「한국고대사회에서 성모와 노구」, 『백산학보』 64, 백산학회, 2002, 157~183쪽; 박은애, 「한국 고대 토착신앙의 담당자」, 『신라문화』 38, 동국대신라문화연구소, 2011, 115~134쪽.
- 2) 김국희, 「사서(史書)를 통해 본 노구의 특성과 변이양상」, 『어문연구』 75, 어문연구학회, 2013, 164~187쪽.
- 3) 김국희, 「조선후기 야담에 나타나는 노구의 특징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70, 한국문학회, 2015, 39~67쪽.

노구를 뚜쟁이 노파와 같은 특정한 계층의 여성으로 보았으며,⁴⁾ 소설 속 노구의 공간에 주목하여 월하의 신성과 음행 조장의 비속을 겸비한 양면적 존재로 보기도 했다.⁵⁾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노구는 ‘할미’의 한역어로⁶⁾ 고대에는 신성하고 권위 있는 존재였으나 중세 이후 현실의 비속한 늙은 여성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노구는 계룡에게서 태어난 알영을 키워 혁거세와 혼인시키는데⁷⁾, 선도산의 서술 성모가 혁거세와 알영을 낳았다는 설화⁸⁾를 보건대, 노구는 서술성모가 인간으로 현현(顯現)한 존재로 볼 수 있다. 백제본기에서 노구가 남자나 여우로 바뀌었다는 기사도 노구의 초현실적 존재감을 드러낸다. 한편 고구려본기에서는 정치에 참여하는 실재 인물로서 노구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현실성은 후대로 갈수록 두드러져 조선 초기에는 왕을 축수하거나 알현하는 여성으로 짧게 언급되기도 한다. 노구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조선 중기 이후이다. 『물암집』에는 노구의 개념을 ‘홍정을 붙이는 여성’⁹⁾으로 규정했는데, 실제로 조선 후기 야담집에서 노구는 술집 여자, 전직 기생, 약 피는 노인, 두부 장사 등 거래 및 홍정을 업으로 하는 인물군으로 나타

4) 김경마·조혜란, 『19세기 서울의 사랑 절화기담·포의교집』, 여이연, 2003, 16쪽.

5) 김국희, 『조선 후기 애정소설 속 ‘노구(老嫗)’의 의미』, 『어문학』 121, 한국어문학회, 2013, 137~160쪽.

6) 할미의 어원을 보면 ‘큰 여성, 위대한 여성’을 뜻하며, 한역어에는 노구, 노온, 노파가 주로 쓰인다. 우리 문헌에서 노파는 일반적인 늙은 여성을, 노온은 여종이나 유모를 가리킨다. 고대부터 중세까지 의미 있게 언급되는 존재가 노구이다.(김국희, 『할미 서사의 원형과 갈래별 전개 양상』, 박이정, 2019, 38~50쪽 참조) 한편 노고는 시어머니의 한역어로, 주로 여신 신앙과 관련한 노고단, 노고당, 노고봉 등의 명칭에 쓰인다.

7) 『삼국사기』 신라본기1 혁거세왕 5년.

8) 『삼국유사』 감통편, ‘선도성모수회불사’.

9) “牙婆. 註如今之홍정부치는거지비니라. 婆. 老嫗也.”(『물암집』 4권, 소학강록, 가언)

난다.¹⁰⁾ 노구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조선 후기 사료에 등장하는 노구 업과 그에 대한 차별이다. 노구는 양반과 평민을 넘나들며 기혼자와 미혼자의 야합을 조장하는 업을 했는데, 이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도배(島配)에 처해졌다. <절화기담> 과 <포의교집> 에서 ‘노구’나 ‘당과’가 한미한 서생과 하층 여성의 음행을 조장한 것도 이러한 노구 업에 해당된다.

이처럼 문헌에 나타나는 노구는 신성한 존재에서 비속한 존재로 변모했지만, 주지하다시피 민속에서는 지리산의 노구당이나 서구할미 제의처럼 여전히 신격으로서 숭앙 되어 왔다. 따라서 조선 후기 노구에 대한 인식은 신격의 잔상과 불륜을 조장하는 비루한 늙은 여성의 실체가 착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민간의 이야기판에서 노구 업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민간의 정서와 의식을 풍부하게 반영하는 구비설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의 ‘단명할 사람 배필 잘 얻어 살아나기’ 형과, ‘쫓겨난 며느리와 숫구이 총각형¹¹⁾을 대상으로 노구의 형상화 양상을 살피고, 노구에 대한 민간의 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들 설화는 한미한 서생과 고관의 딸 또는 양반 부인과 하층 남성의 야합을 모티프로 하고 있고, 그 조력자로 노구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노구 업의 세태와 관련 지을 수 있다. 다만 이야기 속에서 노구를 형상화한 정도는 미약하여, 노구에만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인공의 결연을 중심으로 그 과정에서의 노구의

10) 김국희(2015), 앞의 글, 56~60쪽. 한편 조선시대에는 보통의 늙은 여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기도 하는데, 『한국문집총간』에 등장하는 노구를 살펴보면 지체 낮은 늙은 여성을 ‘대접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그렇다고 문헌에서 노구가 자주 언급되는 것은 아니다. 양반 사대부들에게 늙고 비속한 여성은 세태를 반영하거나 백성들의 지난한 삶을 묘사할 때 주로 등장한다.

11) 『대계』 별책부록1 한국설화유형분류 중 715-1의 ‘숫구이 총각과 생금장’ 유형에서 쫓겨난 며느리가 숫구이 총각과 만나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는 이야기만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쫓겨난 며느리와 숫구이 총각’ 형으로 명명한다.

역할과 전승자들의 인식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를 통해 중세 후기 신분 질서와 윤리적 기강을 무너뜨리는 노구라는 존재가 민간의 이야기판에서는 어떻게 형상화되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2. 조선 후기 노구와 노구 업의 세태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이, 문헌에서 노구는 주로 특정한 의미를 지닌 여성으로 등장하는데, 그 의미를 대변할 수 있는 말은 ‘남녀결연의 중개’라고 할 수 있다. 혁거세와 알영부터 소지왕과 벽화, 고려 작제건과 용녀의 결연¹²⁾과정에서 노구는 남녀를 맺어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세 경우 모두 왕가와 관련되는 공통점이 있는데, 노구는 알영을 양육하여 혁거세의 부인이 되게 하거나, 소지왕에게 민간의 여인인 벽화를 궁중에 들이도록 하거나, 작제건과 용녀의 혼인을 도와 그 후손인 왕건의 고려 창업에 기여하고 있다.¹³⁾ 한편 왕의 여성 편력에 맞서기도 하는데, 고려 후기 충혜왕이 진사우물골에서 처녀를 요구했을 때, 노구는 처녀가 없다고 말하여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¹⁴⁾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 노구는 고대 사회부터 주로 남녀의 결연을 중개하는 늙은 여성을 일컫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유독 왕가와 관련된 기사에만 언급되는 이유는 ‘민간의, 늙고, 권력도 없고, 여성인’ 노구의 행위를 굳이 문헌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 전기의 실록에도 노구가 등장하지만, 승려 및 소경과 함께 왕을 알현하거나, 왕을 축수하는 여인으로 짧게 언급된다.¹⁵⁾ 성리학의 예교에

12) 차례로 『삼국사기』 신라본기1 혁거세왕 5년과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22년, 『고려사』 세계 작제건.

13) 이처럼 왕가의 혼인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정식 지위가 없어도 고구려의 노구처럼 정치적 조언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생겼을 것이다.

14) 『고려사』 세기36 충혜왕 후4년 4월.

기반한 조선 왕가에서 노구가 입지를 구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노구의 업은 여전했는데, 특히 조선 후기 민간의 문학 작품과 문헌자료에서 당대 노구의 구체적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복선화 음가류의 규방가사인 〈김씨계녀사〉에서 괴똥어미의 실행을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 “중들의 계집질과 노구질에 관심 갖고 심지어 주관하기”¹⁶⁾에서 계집질의 상대로 언급되는 ‘노구질’을 볼 수 있다. 문맥에서 계집질을 남자 종들이 아내가 아닌 여자와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면, 노구질은 상대적으로 남편이 있는 여종과 다른 남자와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소설 〈상사동기〉, 〈절화기담〉, 〈포의교집〉에서는 그러한 세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상사동기〉에서 노구는 한미한 김생이 궁녀 영영과 결연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절화기담〉에서 양반집 행랑할멈 노구는 돈을 받고 이생과 방씨 집 여종 순매의 하룻밤을 주선한다. 〈포의교집〉에서는 당파(堂婆) 즉 행랑할멈이 양반 이생의 요청으로 행랑에 거처하는 유부녀 초옥과의 결연을 주선한다. 영영은 회산군의 궁녀로 왕의 여인이고, 순매와 초옥은 지아버가 있는 하층 여성이다. 따라서 노구는 양가의 선비와 하층 유부녀의 야합을 조장한 셈이 된다. 이처럼 노구의 행위가 강상의 윤리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법에 저촉됨에도¹⁷⁾ 불구하고 문학작품에 버젓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당대 현실에서 ‘노구질’이 암암리에 만연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노구의 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전에서 다루어질 만큼 사안이

15) 『조선왕조실록』 태종6년 3월과 10년 10월, 세조6년 10월. 이상의 역사적 자료에 대한 설명은 김국희(2013), 앞의 논문 참조.

16) 〈김씨계녀사〉 (임기중, 『역대가사문학전집』 8, 서울:동서문화원, 1987)

17) 〈절화기담〉에서 순매의 이모 간난이가 노구를 책망하는 대사에서 알 수 있다. “이 할망구야, 이 할망구야. 머리 허연 과부가 어찌 감히 입품을 팔고 손을 놀려 내 조카 딸을 피웠단 말이나? 내가 눈치를 챈 것만 해도 여러 번이야. 내 이 할망구를 법으로 얹어 넣고야 말거야.” (김경미·조혜란(2003), 앞의 책, 122쪽)

심각했다. 영조 2년(1746) 형조에서는 왕에게 유부남과 유부녀의 야합을 도모한 사건에 대해 벌을 줄 것을 청한다.

“지난 7월 5일에 올린 남부(南部)에 사는 포수 최두흥(崔豆興)의 고장(告狀)에, 이웃에 사는 노파 귀향(貴香)이 최두흥의 처를 찢어 단천(端川) 사람인 출신 이익번(李益蕃)을 서방으로 삼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귀향과 이익번을 최두흥의 처와 함께 잡아와서 추문하였더니, 이익번이 귀향의 주선으로 최두흥의 처와 간통한 사실이 의심할 것 없이 명백하였고 이익번은 이미 지만(遲晩)하다고 공초(供招)하였습니다. 근래에 향곡(鄕谷)의 무인배가 출신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밀천으로 삼아 조금도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태가 실로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별도로 처치하지 않으면 훗날을 정계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유부녀와 간통한 죄는 명백한 형틀이 있으므로 본조에서 형법에 따라 과죄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옵니다.”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¹⁸⁾

위 사건에서 귀향은 포수 최두흥의 아내를 찢어 시골의 무인배인 이익번과 간통하게 한 죄로 고발된다. 귀향은 원문에 ‘老嫗 貴香’으로 기록되어 있고 유부녀를 유인하여 간통을 주선한 정황으로 보아 노구 업을 행한 것으로 보인다. 형조에서는 간통한 남자인 이익번의 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그것은 그가 과거거제자라는 상층 신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노구와 간통녀의 죄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 양반 남성의 처벌을 운운했다면, 그와 함께 죄를 저지른 하층 여성에게는 더 무거운 벌이 내려졌을 것이다.

노구에 대한 처벌 규항은 조선 후기 형사법과 관련하여 왕의 재가 및 명령을 정리한 <수교정례>와 법 판례집인 <율례요람>에서 찾을 수 있다. <수교정례>를 보면, 영조 44년 왕은 상참에서 홍조판서에게 노구 사

18) 『승정원일기』 영조2년(1726) 7월 8일.

건에 대해 형추·도배하는 조항을 만들 것을 명한다.¹⁹⁾ 이 조항은 실제로 적용되었는데, <율례요람> '171. 초인행음'에는 노구 업을 행한 자를 도배에 처한 사례가 실려 있다.

‘아무개 저는 살아갈 길이 없어서 노구(老嫗) <여기서는 음란한 행위를 중개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²⁰⁾로 업을 삼아, 부잣집 자제와 남편 있는 양가의 여인을 유인하여다가 어지럽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여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하였다. 사목(事目)에 이르기를 ‘노구(老嫗)의 노릇을 하는 자는 매를 쳐서 추문(推問)하고 섬으로 귀양보낸다’고 하였다.²¹⁾

여기서 노구에 대한 몇 가지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첫째, 노구는 음란한 행위를 중개하는 여성이나 중개하는 업 자체를 의미한다. 둘째 노구는 생계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천업으로 추정되며, 셋째 <절화기담> 이나 <포의교집> 에서 보았듯이 부잣집 자제와 양가 유부녀의 음행을 주선했다. 상층과 하층을 아우르는 음행을 주선했 정도면 행동반경이 비교적 넓고 자유로웠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각 시에는 고문을 가하여 섬으로 쫓겨날 만큼 엄벌을 받았다. 즉 당시의 지배 논리에서 볼 때, 노구는 그 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정황은 이해가지만,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므로 용납되지 못했던 것이다.

한편 양가의 자제와 하층의 유부녀가 아니라, 역으로 양가의 여인과 하

19) 법제처, 『수교정례·율례요람』, 1970, 25쪽.

20) 법제처에서는 노구의 뜻을 ‘음란한 행위의 중개’로 보고 있지만, 한자의 의미를 본다면 ‘음란한 행위를 중개하는 할멈’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처음에는 중개하는 사람을 의미하다가 후에 그 업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초인행음’에서는 둘 다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21) “某矣矣身 生涯無路 或以老嫗爲業 而誘取富家子弟 及有夫良女 狼藉行遙 而至於敗散之境云云 事目內 老嫗者 刑推島配云云” - 171초인행음(招引行淫)(법제처(1970), 앞의 책, 272쪽)

층 남성의 음행을 조장하여 처벌된 경우도 있다. <서당사제> 권 22 ‘경기 관찰사이공행장’에는 이덕수(1673~1744)가 망우당 객재우의 서손녀가 당한 음행 사건을 해결해 준 일이 실려 있다. 사건의 내막을 보면, 객재우의 서손녀에게는 이미 정혼한 상대가 있는데도, 밀양의 장사꾼이 그녀와 통정하여 혼인을 언약했다며 관에 송사한다. 이웃집 노구가 장사꾼과 객녀를 중매했다고 증언하고, 장사꾼은 서로 신물까지 주고받았다고 객녀가 지녔던 과두포를 증거로 내놓는다. 이때 공은 객녀의 무고함을 믿고 노구를 따로 문책하여 장사꾼과 노구가 모의하여 객녀를 음해했음을 밝혀낸다.

공이 장사꾼을 물러가게 하고 노구를 불러 “객녀의 과두가 어떻게 상인에게 전해졌느냐?” 하고 물으니, 노구가 동요하며 말하기를 “제가 이미 상인을 위해 중매를 했으므로, 그 저녁에 객녀와 더불어 함께 잤습니다. 한밤이 지나 객녀가 “복문이 닫히지 않았느냐, 어찌 한기가 이렇게 많은가” 하며 말했습니다. 다음날 객녀가 또 말하기를 “과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담배와 차 주머니가 객녀의 베개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이로써 상인과 혼약하고 왔음을 알았습니다. 공이 다시 언성을 높여 노구를 꾸짖으며 말하기를 “너는 이미 중매를 했는데, 하필 그 밤에 가서 잤느냐? 여자가 이미 과두를 주었는데, 다음날 그것을 찾은 것은 어떤 이유인가?” 공이 노구에게 장을 쳐서 끝내려 하니, 노구가 비로소 복종했다. 과연 상인에게서 돈을 받고 과두를 훔취 주어 그 혼약함을 증명했던 것이다. 공은 즉시 상인과 노구에게 장을 쳤다.²²⁾

객녀는 충익의 시호가 내려지고 병조판서 겸 지의금부사로 추증된 객재

22) 公退賈豎。而進老嫗問曰。郭女裹肚。何以偷傳賈豎。嫗色動曰。吾既爲賈人行媒。其夕與女同寢。夜分後。女曰。北戶不閉耶。何多寒氣。翌朝。女又曰。裹肚不知在處。又見烟茶囊在女枕邊。以是知賈人如約而來。公復厲聲詰之曰。汝既行媒。其夜何必住宿。女果以裹肚相贈。翌朝之搜索。豈理也。欲施杖究。嫗始款服。果受賈人金。偷給裹肚。以證其行媒。即杖配賈人及老嫗。

우의 손녀로 반가의 여성이다. 서손이라고 하지만 망우당의 명성을 보건대, 일개 장사꾼이 넘볼 수 있는 집안의 처녀가 아니며, 정혼한 곳이 있으니 예식을 치르지 않았다고 해도 남편이 있는 것과 다름없는 처지이다. 그런데도 장사꾼이 늑흔을 시도한 것은, 꺾녀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인 데 비해 장사꾼은 부유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노구를 돈으로 사주하여 꺾녀의 과두를 흠치게 한 후, 자신의 물건인 담배와 차 주머니를 놓고 오게 했을 것이다. 이처럼 노구와 장사꾼의 모의가 가능한 이유는 그들의 처지가 비슷하고,²³⁾ 또 노구가 충분한 보수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노구와 꺾녀의 관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꺾녀를 찾아가 스스로 없이 함께 지는 것을 보면, 노구는 꺾녀 집안의 유모이거나 외저노비 또는 집안일을 돌봐주는 여성으로 짐작된다. 즉 양반댁의 사정을 잘 알고,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신분인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남노구의 존재이다. 정조 12년의 기사에는 남노구를 일삼은 장세휘를 엄벌할 것을 청하고 있다.²⁴⁾ 남노구가 노구 업을 하는 남자를 일컫는 것인지, 혹은 남성 간의 음란행위를 주선하는 자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장세휘가 남자로 추정되므로, 남노구는 남자가 주관한 노구업인 점은 확실하며, 이는 당시 노구업이 상당히 문란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조선 후기 노구 업은 상층과 하층의 신분을 넘나들며 유부남과 유부녀의 음행을 조장했으며, 발각되면 법률에 의거하

23) 『이계집』 37권 〈예조판서치사봉조하홍공시상〉에서는 노구의 업을 유랑민들의 구걸이나 사기 행각과 같은 부류로 보고 있다. 노구와 유랑민은 시정의 하층민으로, 장사꾼의 처지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24) “본청(本廳)에서 수금(囚禁)하고 있는 죄인 장세휘(張世輝)는 평소부터 고집스럽고 사나워서 윗사람을 능멸하고 신분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으므로 이웃 사대부 가운데 그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은 이가 드물었습니다. 게다가 남노구(男老嫗)의 수단이 그의 기량이라서 기찰하여 잡아 가두었는데(...) 이와 같은 놈은 쉽게 결단하여 풀어 주어서는 안 되므로 우선 그대로 가두었으니 엄하게 감처하는 것을 그만두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일성록』 정조 12년 10월 5일)

여 처벌되었다. 처벌이 엄해도 노구 업은 만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반가의 여성을 유인하거나 남노구까지 등장한 걸 보면 당시 노구 업의 폐단이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 후기 생계 수단이 없는 하층민들이 노구로 업을 삼았고, 더불어 하층의 젊은 여성들 또한 돈을 벌기 위해 상층 남성과의 불륜에 가담했음을 보여준다. 드물지만 노구가 상층 여성과 하층 남성과의 음행도 조장했는데, 이 또한 금전적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문헌을 보건대, 상층 양반들에게 노구의 행위는 다각도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공식적인 지배 논리인 법체계에서 돈을 목적으로 불륜을 조장한 노구의 행위는 사회의 윤리 기강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단호하게 처벌된다. 시정의 이야기에 기반한 야담에서는 노구의 신분은 언급되지만, 그 업에 대한 이야기는 찾기 힘들다. 짐작건대 야담집의 저자인 상층 남성의 입장에서 노구 업은 그들 계층의 치부 또는 객기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한문소설에서 노구는 남녀의 부정한 결연을 도와주는 비속한 중매인으로 등장할 뿐 법이나 윤리의식에 구속받지 않는다. 오히려 불륜보다 남녀의 자유로운 연애가 아슬하게 묘사되는 것을 보면, 실제 시정에서는 노구의 위법적 행위보다 ‘사랑’이나 ‘인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²⁵⁾ 법률, 야담, 한문소설의 담당층은 상층 지식인이다. 그들에게 노구는 처벌의 대상, 은폐의 대상, 또는 흥밋거리로 인식되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하층민들에게 노구는 어떤 존재였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전승되는 이야기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3. 설화 속 노구 업의 형상화 양상

25) “그렇다면 뽕밭에서의 만남과 성 모퉁이에서의 기다림 또한 하늘이 맺어준 인연, 사람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또한 인연이다.”(김경미·조혜란 (2003), 앞의 책, 72~75쪽)

민간에서의 노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단명할 사람 배필 잘 얻어 살아나기’ 형과, ‘쫓겨난 며느리와 솥구이 총각’ 형의 설화에서 노구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명할 사람 배필 잘 얻어 살아나기’ 형의 설화는 주인공이 단명에 대한 예언을 듣고 그것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며, 방안을 실현한 후에는 연명과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이야기이다. 주인공에게 단명의 운명을 알려주는 이는 지나가는 중이나 도승이고, 연명할 방안 역시 그들이 알려주거나 아니면 과점을 치는 점쟁이가 알려준다. 연명 방안은 주로 삼정승의 딸과 혼인하는 것인데,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노구의 도움을 받게 된다.

여기서 노구는 주인공이 정승 딸을 만나도록 주선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젊은 남녀의 연분을 이어주는 늙은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노구업과 관련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인공의 처지, 노구의 처지, 주인공과 노구가 만나는 계기, 노구의 역할로 나누어 해당 설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단명할 사람 배필 잘 얻어 살아나기’형의 주인공과 노구

	제목	주인공의 처지	노구의 처지	주인공과 노구의 만남의 계기	노구의 역할	소재/쪽
(1)	삼정승의 딸을 얻은 아이	과거를 보려는 도령	과부 할머니	과부 할머니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 집에 묵게 된다.	황정승의 몸종인 딸에게 정승택에 데리고 가게 한다.	1-4/ 70~74
(2)	정승 딸 얻은 10대 독자	부유한 진사 집안의 10대 독자	팔죽장사 할머니	여기저기 다니다 팔죽 할머니 집에 묵게 된다.	주인공을 수양아들로 삼아 정승택 몸종인 딸에게 오빠를 정승택으로 들여보내게 한다.	1-4/ 568~586
(3)	9대 독자	양가의 9대 독자	팔죽장사 할머니	서울에 가서 돌아다니다 팔죽장사 할머니를 만나 그 집에서 밥을 사 먹는다.	주인공의 사연을 들은 할머니가 방물장사로 꾸며 삼정승의 딸들과 친해진다.	1-7/ 792~800
(4)	호환 면한 정승 아들	정승의 아들	노인네	방방곡곡 다니다 어느 한 군데서 노인네를 만난다.	주인공을 수양아들로 삼아 정승택 몸종인 딸에게 오빠를 정승택에 들여보내게 한다.	2-2/497
(5)	십생구사	이진사의 외아들 윤선	팔죽장사	윤선과 하인이 팔죽장사의 집에서 버린 팔죽 껌데기를 먹고 있다가, 심판서의 몸종인 그 집 딸을 만난다.	팔죽장사의 딸은 꿈을 통해 윤선과 하인이 범상한 인물임을 알고, 자신의 옷을 입혀 심판서 택으로 들여보낸다.	2-7/ 82~92
(6)	두 정승 딸	김정승의	팔죽장사	서울 구경을 하다가 팔죽을	주인공이 노파의 집을 지어주	4-4/

	언은 총각	아들	노파	사 먹고 주인 노파의 수양아들이 된다.	자 감동하여, 조정승택 몸종으로 있는 딸에게 정승택으로 들여보내게 한다.	316~325
(7)	단명한 소년인 정승 딸을 만나 출세하다	과부의 삼대독자	팔죽장사	단명을 예언한 도사가 팔죽장사를 찾아가라고 한다.	팔죽장사가 대감택 몸종인 딸에게 주인공을 오빠로 속여 대감택에 들여보내게 한다.	5-1/ 81~89
(8)	단명을 모면한 이운선	양가의 만득자 (晩得子)	겨우 먹고사는 노파	돈이 없어 좋은 여관을 찾지 못해서 노파의 집에 묵었다.	노파 딸이 상시관의 몸종이라, 딸에게 주인공을 상시관택으로 들여보내도록 부탁한다.	5-4/1087 ~1096
(9)	죽을 명을 이은 사람	진사의 아들	노파	점쟁이가 상시관 집에서 종 노릇 하는 노파의 집에 가라고 알려준다.	몸종인 딸에게 도령의 사정을 알려주자, 딸이 상시관택으로 들여보낸다.	5-5/ 623~629
(10)	삼정승 딸 언은 총각	양가의 도령	팔죽장사 할머니	서울 어느 팔죽집에 들어가 그 집에서 묵게 된다.	주인공이 노구에게 팔죽값을 후하게 주자, 노구가 삼정승의 몸종으로 있는 딸에게 들여보낼 방도를 내게 한다.	5-7/277
(11)	호식할 팔자를 고친 사람	부모가 구걸을 하며 낳은 자식	팔죽장사 할머니	여기저기 떠돌다 팔죽장사 노파를 만나 양자가 되어 일 해주고 그 집에 묵게 된다.	노파가 양자의 사정을 삼정승택 몸종으로 있는 딸에게 알려 정승택에 들여보내도록 한다.	6-4/ 705~711
(12)	삼정승 딸 침 구해서 목숨 구한 삼대 독자	양가의 삼대 독자	한양 산비탈 촌가에 사는 할머니	그냥 노구의 집을 찾아가 하룻밤 묵을 것을 청한다.	할머니의 딸이 정승집 몸종으로 있어, 딸에게 부탁한다.	6-9/ 110~123
(13)	쫓겨난 정승 며느리가 낳은 아들	정승집 유복자	오두막집 할머니	해가 저물어 들른, 동네의 오두막집 할머니에게 하룻밤 묵을 것을 청한다.	할머니의 딸인 정승집 몸종과 동침하게 되어 그에게 사정을 알려주자, 몸종이 정승딸을 만나게 해준다.	7-13/ 360~373
(14)	호식 면하고 김정승 사위된 이야기	시골 사는 이정승의 아들	정승집 앞의 오두막에 사는 노고할머니	김정승의 집을 찾아가니 그 앞에 오두막 한 채가 있어 과거 불 동안 묵어가기로 한다.	노고할머니가 김정승택 몸종으로 있는 딸에게 주인공을 오빠로 속여, 정승집에 들여보내게 한다.	8-6/ 342~357
(15)	삼정승 딸과 혼인한 총각	어느 정승의 아들	장안의 늙은 여종	삼정승 딸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말에 주인공이 낙담해서 울자 노구가 사연을 묻는다.	노구가 삼정승의 몸종으로 있는 딸에게 주인공을 오빠로 속여 정승집에 들어가게 해준다.	8-13/ 133~140

주인공의 신분은 주로 시골의 한미한 양반택 도령이다. 정승의 아들이나 손자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이는 주인공을 고귀하게 묘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만약 정승의 자제였다면 결연해야 할 상대 또한 같은 지위의 집안이므로 혼담을 시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은 혼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운명에 좌절하여 집을 떠난다. (4)에서는 “그러니 하늘에 별따가지

그걸 어떻게 바래졌오 말야.”, (6)에서는 “감불생(심)이지 워트게 조정승에 딸, 박정승에 딸을 워트게 장가를 갈 터?”라고 하며, (15)에서는 삼정승의 딸과 결연해야 단명을 피한다는 점괘 때문에 주인공과 하인이 함께 울기도 한다.

주인공인 도령이 한미한 처지인 데 비해, 결연하는 처녀들은 대부분 정승이나 판서, 시관 등 서울에서 내로라하는 세력가 집안의 딸들이다. 고귀한 신분에 맞게 그들이 거처하는 초당은 정승 부부의 방을 거쳐야 갈 수 있고, 연못 가운데 있어 배로만 다닐 수 있다. 처녀들은 능력과 재주도 출중하여 초당에 모여 주역이나 독경을 읽으며 공부하는데, 호랑이나 요괴가 주인공을 잡으러 왔을 때는 독경을 읽어 물리치기도 한다. 높은 신분, 고귀한 삶, 그리고 초월적 힘을 지닌 존재인 셈이다.

이처럼 한미한 주인공과 고귀한 정승 딸의 결연은 팔죽 할머니, 노고, 노파, 늙은 여중 등의 도움으로 맺어진다. 이들은 주인공이 정승 딸을 몰래 만나 동침할 수 있게 돕는데, 정승의 허락이나 정식적인 절차가 없는 결합이므로 혼인이 아닌 야합을 돕는 것이 된다. 특히 (5)에서 정승 딸은 백운선과 혼인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도, 단명을 극복하기 위해 초당에 침입한 이운선이 자신의 연분임을 알고 그와 야합한다. 정혼자가 정해진 여성과의 야합은 불륜이다. 따라서 남녀의 야합과 불륜을 주선한 팔죽 장수 등의 할머니는 노구로 업을 삼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인공과 노구의 만남을 보면, 주인공이 ‘노구의 집에 묵게 되거나’, ‘노구의 집에서 팔죽을 사 먹거나’, ‘한 군데 가서 노구를 만나거나’, ‘구경다니다 노구의 집에서 팔죽을 사 먹고 수양 모자 관계를 맺거나’, ‘어느 촌가를 찾아가 노구에게 묵기 청하거나’, ‘어느 기와집 옆 오두막을 찾아가 노구에게 돈을 주고 하룻밤 자기로 하거나’ 등으로 언급된다. 언뜻 보면 우연하게 노구를 만난 것 같지만, 이야기 속에서 ‘우연히’라는 말이 언급되는 사례는 없다. 오히려 ‘사 먹고’, ‘만나고’, ‘찾아가고’의 의도적 행위로 보아, 주인

공이 노구나 노구의 집을 의식하고 찾아간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 곧 단명할 주인공의 처지와 후에 노구 덕분에 정승댁에 들어가게 될 상황을 고려하면, 주인공이 우연한 만남을 기다리기보다 노구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를 일부러 찾아갔다고 보는 것이 개연성이 있다. 더불어 노구의 딸이 정승댁 몸종인 점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노구 업을 중심에 두고, 설화에서 생략되었을 섬세한 부분까지 보완하여 내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한미한 집안의 독자가 단명을 예언 받는다. 예언한 사람이나 점쟁이가 알려준 극복 방안은 정승의 딸과 동침하는 것이다. 주인공의 처지에서 정승 딸과의 정식 혼례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정승댁을 찾아가 그 딸을 만나야 한다. 그러나 그조차도 주인공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야기에서 정승 딸이 사는 공간을 ‘날짐승만 들어갈 뿐 길짐승은 못 들어가는 곳, 열두 대문마다 문지가 지키는 곳’²⁶⁾으로 묘사하는 것은 주인공이 정승딸에게 범접하기 어려움을 나타낸다. 따라서 우선 해야 할 일은 정승댁에 들여보내 줄 사람을 찾는 것인데, 그가 바로 노구이다. 각편의 대부분에서 노구의 딸이 몸종이고, 특히 (15)에서 노구 자신도 늙은 여종인 점을 보면, 그의 신분은 외거노비로 추정된다. 외거노비는 내거노비와 달리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는데, ‘늙은 종인 노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장사였을 것이다. 장삿집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찾기도 쉽고, 거리낌 없이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할 수 있는 것이다.

주인공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노구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한다. 노구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가족관계를 맺기도 하며, 인정에 호소하기도 한다. (6)에서는 집을 새로 지어주고 (10)에서는 팔죽값을 후하게 주는데, 모두 돈으로 노구의 환심을 샀다고 봐야 한다. (3)에서는 노구가 주인공

26) 설화 (14)의 348~349쪽.

을 돕기 위해 방물장사가 되어 정승 딸과 친분을 쌓는데, 방물을 구입하는 자금의 출처는 당연히 주인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주인공은 오랜 객지 생활로 돈이 없으므로 노구의 인정에 호소한다. 노구와 모자 관계를 맺은 후 노구의 딸에게 오빠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청하거나, 주인공의 사정을 알게 된 노구가 직접 나서서 딸에게 부탁을 들어주게끔 한다. 예외적으로 (13)처럼 주인공이 노구의 딸인 정승댁 몸종과 결연한 후 사정을 얘기하여, 몸종이 적극적으로 정승 딸과의 만남을 돕기도 한다.

따라서 설화 속 노구는 주인공이 ‘우연히’ 만난 귀인이 아니라, 대가를 받고 한미한 서생과 고관 댁 여식의 야합을 주선하는 여성이다. 비록 노구의 활약이 소략하게 다루어져 그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노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현실감을 획득하게 된다. 이 점은 같은 유형의 설화 중 노구가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와 비교했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삼정승의 딸을 얻은 단명 소년’²⁷⁾에서 단명의 예언을 들은 주인공은 집을 나와 ‘어떤 곳’에 머물게 되는데, 마침 앞집이 삼정승의 딸이 사는 초옥(草屋)이어서 몰래 그곳으로 들어가 정승 딸을 만난다. 이야기에 따라 주인공이 직접 김정승의 집을 찾아가 밥을 얻어먹고 몰래 마룻장 밑에 숨어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정승 딸을 만나기도 하고,²⁸⁾ 판수가 주인공이 찾아가야 할 집을 가르쳐주어 그 집에 하룻밤 잘 것을 청하기도 하며,²⁹⁾ 주인공이 정승댁의 머슴이 되기도 한다.³⁰⁾ 또 객지를 떠돌던 주인공이 어느 대감집으로 들어가 대감 아들의 도움으로 결연 상대를 만나기도 하고,³¹⁾ 하인의 도움을 받아 초당의 수채로 숨어 들어가 시관의 딸

27) 『대계』 1-1, 494~500쪽.

28) ‘삼정승 사위 된 한림학사’, 『대계』 2-9, 199~203쪽.

29) ‘이진사 이야기’, 『대계』 2-9, 346~352쪽.

30) ‘삼정승의 세 딸 얻어 호환을 면한 총각’, 『대계』 3-3, 254~250쪽.

31) ‘열두 큰 애기 얻은 총각’, 『대계』 6-2, 187~194쪽.

을 만나기도 한다.³²⁾ 이들 이야기에는 노구가 없으므로 주인공은 직접 정승택을 찾아가 그 집 딸과 동침한다. 그런데 바로 앞집이 정승 딸이 머무는 곳, 몰래 들어가기, 머슴으로 들어가서 만나기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력자로 대감의 아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대감의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없고,³³⁾ 친분을 쌓게 되는 계기가 영성하고 자세하지 않다. 따라서 노구를 생략한 경우 이야기는 현실감을 상실하여 허무맹랑해질 수밖에 없다.³⁴⁾

이야기의 결말이 달라 앞의 유형에 포함할 수는 없지만, ‘유복자 삼정승 날 명당’과 ‘현풍 광씨 이야기’³⁵⁾도 주인공의 신분, 노구의 역할, 정승 딸과의 결연에서 공통점을 보이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복자 삼정승 날 명당’에서 세 형제는 삼정승이 나지만 자신들은 죽게 되는 곳에 아버지의 묘를 쓴다. 두 형은 죽고 막내만 남게 되자, 막내는 집을 떠나 어느 노구할머니 집에 유숙한다. 밤에 노구는 수양딸³⁶⁾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러 가게 되고 그 수양딸은 노구 집에 자러 오는데, 이때 막내와 수양딸의 결연이 이루어진다. 결국 막내는 죽지만 수양딸이 임신하여 집안의 대를 잇는다. ‘현풍 광씨 이야기’에서는 앞서와 같은 처지의 주인공이 집을 떠나 서울 떡 파는 노구를 찾아가 일을 도와주며 살게 되는데, 주인공의 사정을 알게 된 노구가 대감집 몸종으로 있는 딸을 시켜 대감 딸의 거처에 주인공을 들여보낸다. 역시 주인공은 죽게 되지만 대감 딸은 임신하여 집안의 대를

32) ‘옥황상제 아들 돌쇠’, 『대계』 6-9, 729쪽.

33) 어디 한 곳을 가니까 참 부자가 많이 살고 지와 집도 많고 그러이 서재에 글소리가 나니 거그를 들어갔어. 아 거그 들어가서 인자 한 이틀 쉬는디, 아 대감이 보닝께 이것이 참 재주가 있어. 네잇 자기 아들허고 돌이, “야 아허고 돌이 느그 독서당해 가가지고 공부를 해라.” (‘열두 큰 얘기 얻은 총각’, 『대계』 6-2, 189쪽)

34) 이야기의 전개가 매끄럽지 않음에도 노구를 생략한 것을 통해 전승자들이 노구를 이야기의 전면에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35) 차례로 『대계』 4-4, 129~131쪽과 7-6, 406~413쪽.

36) 수양딸이라고 하지만 부모가 양반이므로, 노구는 처녀를 키운 유모로 봐야 한다.

있다. 이 두 설화에서 주인공의 단명은 가문의 번창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운명이므로³⁷⁾ 연명할 방안은 제시되지 않는다. 주인공 또한 자신의 연명이 아니라 죽기 전에 지관의 예언대로 삼정승이 될 후손을 남기는 것이 절박하다. 그러려면 혼례를 치러야 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절차를 거쳐 좋은 집안의 규수를 맞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양가의 규수와 빨리 연분을 맺으려면 노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느 노구 할머니의 집에 묵거나, ‘떡과는 노구를 만나 일을 도와주거나’ 등의 의도적 표현 속에는 노구를 찾아다니는 주인공의 절박함이 내재되어 있다.

한편 ‘쫓겨난 며느리와 솥구이 총각’ 형의 이야기에서는 앞서와는 다른 형태의 노구 업을 볼 수 있다. 이 유형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승이 아들을 낳았는데 복이 없는 상이다. 복이 있는 며느리를 찾으려고 여러 곳을 다니다 마침내 얼굴에 복이 많은 처녀를 발견한다. 혼사를 맺으러 찾아가니 천민 집안(주로 백정)의 딸이다. 정승은 천민에게 시돈 맺기를 청하여, 자신의 아들과 그 집 딸을 혼례 시킨다. 시아버지가 죽자 남편이 아내의 신분 문제를 삼아 집에서 쫓아낸다. 쫓겨난 며느리는 노모와 그 아들인 솥 굽는 총각이 사는 집에 유숙하게 되고, 총각과 결연을 맺는다. 이후 남편이 일하는 솥가마의 이맛돌이 생금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팔아 부자가 된다. 쫓겨난 며느리는 전 남편이 걱정되어 잔치를 열고, 거지가 되어 찾아온 전 남편을 도와주거나 그에게 돌아간다.

집에서 쫓겨나 솥 굽는 총각을 만나게 되고, 생금으로 부자가 되는 유형의 이야기에는 ‘쫓겨난 며느리와 솥구이 총각’ 외에 ‘내 복에 산다’ 형도 포함된다. 다만 전자의 주인공은 천민이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유부녀인데

37) 단명을 선택한 주인공과 단명할 운명을 타고난 주인공은 세계관이나 혼인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그러나 둘 다 노구의 도움으로 연분을 찾는 것은 동일하다.

비해, 후자의 주인공은 부자인 아버지에게 자신의 덕으로 산다고 말하여 쫓겨나거나 솟쟁이에게 시집 보내진 양가의 막내딸이다. 이들 이야기는 신분이나 처지뿐만 아니라 유부녀와 처녀라는 차이점이 있다. 또 솟 굽는 총각의 처지도 다른데, 텍스트로 삼은 ‘쫓겨난 며느리와 솟구이 총각’의 총각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어머니가 매개자 역할을 하는 반면, ‘내 복에 산다’에서는 총각 혼자 살고 있을 뿐 어머니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노구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쫓겨난 며느리와 솟 굽는 총각의 결연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쫓겨난 며느리와 솟구이 총각’에서 주인공의 처지, 전승자가 솟구이 총각 어머니를 언급할 때의 호칭, 백정 딸이 양반인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후 노구를 만나게 되는 경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쫓겨난 며느리와 솟구이 총각’형의 주인공과 노구

	제목	주인공의 신분	총각 어머니의 호칭	쫓겨난 백정 딸과 노구의 만남	소재/쪽
(1)	솟구이 장자	하인의 딸	안노인, 할머니	저녁때가 되어 오두막에 들어가니 할머니가 있다. 할머니에게 장가 못 간 아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며느리로 삼아 달라고 청한다.	1-1/ 827~835
(2)	진사 아들과 백정의 딸	백정의 딸	하얀 할머니	쫓겨나 산중을 걸어가다 오막살이 집의 불빛을 보고 들어가 하룻밤 유숙할 것을 청한다. 할머니가 자신의 아들과 혼인할 것을 권유하자 허락한다.	1-2/ 352~362
(3)	복덩어리 백정의 딸	백정의 딸	노파	산골짜기를 들어가 밤이 깊어 불이 반짝이는 오두막으로 가니 노파가 있어, 하룻밤 잘 것을 청한다.	3-2/ 75~85
(4)	본 남편 섬긴 백정 딸	백정의 딸	노인네	산골짜기에 불이 반짝여서 찾아가 솟구이 총각을 만난다. 총각이 같이 살자고 하자 허락한다. 총각의 어머니 노구(노고)할매가 밥을 가지고 온다.	4-1/ 257~260
(5)	돌무더기 위의 금덩이	재상집의 과부딸	꼬부라진 할머니	아버지가 재가하라며 죽은 것으로 해주자, 집을 나와 산중에서 호롱불이 있는 집을 찾아가 구제해 달라고 한다.	4-4/ 359~362
(6)	양반 집 며느리가 솟 장사에게 시집가다	종의 딸	호연한(하얀) 할머니	집을 나가 첩첩 산중에 가니 어떤 집에 하얀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가 솟 굽는 아들에게 점심을 주러 가는데, 얻어 먹으려고 따라간다.	5-1/ 455~459
(7)	복 많은 며느리	가난한 소금장수의 딸	허연 백발 노인네	당나귀 한 마리와 돌을 가지고 집에서 쫓겨나 떠돌다가, 산중에 들어가 불을 켜 놓은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 자고 가자고 한다.	5-1/ 513~518

(8)	복이 많은 여자	백정의 딸	하안현 노인네	산에 외딴집이 있어 들어가 노인에게 자고 갈 것을 청한다.	5-4/ 325~328
(9)	두 남편을 섬긴 여자	떡장사 할머니의 손녀	마느래	하루는 저물도록 걸어가니 산속에 불이 뻥한 집에 마느래가 있어 자고 가기를 청한다.	5-4/ 497~502
(10)	삼신할머니가 준 복	하인의 딸	허연 늙은이	산비탈 불이 뻥한 집에 자고 가겠다고 들어간다.	5-4/1087 ~1096
(11)	복진 머느리와 생금장	백정의 딸	안부모	큰 동네 외딴집에 들어가니 장가 못 간 총각과 안부모가 살고 있었다.	7-1/ 58~63
(12)	숫구이 총각의 생금장	부자 백정의 딸	노모	한참 가다가 산골짜기 수수깡 움막집에 들어가 노모에게 자고 갈 것을 청한다.	7-1/ 274~279
(13)	생금덩어리(1)	백정의 딸	노구할마시	날이 저물어 계곡의 불빛을 보고 오두막을 찾아가 노구할마시에게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한다.	7-6/ 559~564
(14)	생금덩어리(3)	백정의 딸	노구할마이	산기슭에 은신하다 불빛을 보고 어느 집에 들어가니, 노구할마이가 손님이 왔다고 반긴다.	7-6/ 600~613
(15)	석순 세 번 일꾼 백정의 딸	백정의 딸	어마이	방전둑 움막에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사는 곳을 찾아가 무엇을 해서 사냐고 묻는다.	7-8/ 169~174
(16)	복 타고 난 백정 딸	백정 딸	호호 백발 할머니	고깔을 쓰고 장삼을 입고 집을 나와 산골짜기 불이 뻥한 데로 가서 하룻밤 쉬어 가자고 한다.	7-8/ 535~550
(17)	복 타고 난 백정의 딸(1)	백정 딸	어마이	숫 굽은 곳의 총각을 쫓아가 자고 가겠다고 한다.	7-13/ 171~181
(18)	복 타고 난 백정의 딸(2)	백정 딸	노구할마이	영남으로 오다 산에 불빛을 보고 찾아가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한다.	7-13/ 611~618
(19)	쫓겨난 머느리와 숫구이 총각	천인의 딸	노파, 할마이	중이 되려고 산속을 헤매다 단칸방을 발견하고 하룻밤 자고 가자고 한다.	7-17/ 182~188
(20)	계 복 차버린 대감 아들	민촌 사는 사람의 딸	노고할마이, 노무할마이, 노후할마시	호랑이 밤이 되려고 산속에 갔다가 불빛을 보고 오두막에 간다.	8-6/ 864~873
(21)	복 많은 여자	백정 딸	노파 할무이	떠돌다가 불빛이 있는 움막에 들어가 노파에게 자고 가겠다고 한다.	8-10/ 387~394

이들 이야기에서 숫구이 총각의 어머니를 처음 언급할 때는 ‘움막집에 숫구이 총각과 그 어머니가 살고 있었다’는 식이 아니라, 주로 하안 할머니, 노구할마시, 노파 등이 그 집에 있었다고 표현한다. 노구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주인공이 우연히 찾아간 집에 모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노구를 만나기 위해 찾아다닌 듯한 느낌을 준다. 예를 들어 (3)‘노파 혼자 있는 집을 찾아가서’, (13)‘노구의 집을 찾아가서’, (14)‘어느 노구의 집에 들어가서’라고 표현한다. 불이 켜진 움막을 찾아가서도 (1)이나 (5)처럼 하룻밤

재워 줄 것을 청하기도 하지만, (13)이나 (21)처럼 자고가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한다. (5)에서는 노구에게 구제해 줄 것을 청하고, (14)에서는 주인공이 들어서자 노구가 손님이 왔다고 반기기도 한다.

(18)을 통해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백정 딸은 떠돌다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노구와 그의 아들인 숲 굽는 총각이 살고 있다. 노구의 집은 주로 산골짜기나 동네의 외딴곳에 있고, 쫓겨난 백정 딸은 불빛을 보고 그곳으로 찾아가 하룻밤 묵기를 청한다.

산골짜기에 오가꼬 날은 어둡어둡한데, 산골짜인데, 질이 오데로 가야 분간을 문하고 산질에 올라가는데 질이 환하이 뻥하이 있어. 거 보이께네 연기가 모락 모락 나는데, ‘에라 여 사람 사는 산맥인갑다꼬, 여 올라가는 길 밖에 없다’고 떠억 올라갔다. 올라가이께네 노구할마이가 있는데, “보이소, 주인 집에 있소?” 향께네, “예, 집에 있소. 우인(어떤) 색시가 이래 오요?” “내 질을 가다 날이 저물어서 여 하룻밤 자고 가입시다.”³⁸⁾

이야기에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주인공인 백정 딸은 남편에게 버림받아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으므로, 유숙할 곳을 찾기 위해 아무 곳이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밤에 산속을 헤매다 인가를 발견했으니 그리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나무로 숲을 구워 파는 총각과 그 어머니가 산속에 움막을 짓고 사는 것도 개연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주인공이 쫓겨나 떠돌다가 산속에 들어가게 되는 경위가 있어야 하고, 우연히 노구를 만나 하룻밤을 자게 해 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연이라는 말은 언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은 주체적으로 노구의 집으로 가서 하룻밤 자겠다고 담담하게 말하는 식으로 표현된다. 심지어 “나는 이 저항(지향)없이 맵기는 사람이라. 내가 가장이 없는

38) (18)의 614쪽.

사람인데, 가장을 하나 구하러 땡기는데 내가 이 집에 좀 삼시다.”³⁹⁾처럼 가장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남편에게서 내쫓긴 주인공의 삶은 막막할 수밖에 없다. 명색이 양반 부인이지만 근본이 천출이므로 친정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험한 일을 하며 기식하거나 결식해야 하고, 심지어 유랑민이 되어 해우채를 받는 사당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시 남편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연분을 이어줄 노구가 필요하다. 노구가 등장해야만 양반 부인과 하층 총각의 결연에 개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⁴⁰⁾

문제는 주인공이 만난 할머니는 노구로 보이지만, 이야기 속의 신분은 솥 굽는 총각의 어머니라는 점이다. 그 이유를 추측하건대, 양반 부인과 하층 남성의 결연이 보여주는 비윤리적 심각성을 무마하기 위해 노구라는 말을 꺼린 것으로 보인다. 또는 복을 타고난 여성이 그 복을 실현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노구가 노모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 즉 타고난 복을 지닌 여성을 중심으로, 정승과 노모 및 정승의 아들과 솥 굽는 총각은 부유한 아버지와 가난한 어머니, 복을 내쳐버린 아들과 복을 얻은 아들로 대비를 이루는 것이다.

4. 설화 속 노구에 대한 인식과 의미

앞서 ‘단명할 사람 배필 잘 얻어 살아나기’ 형과 ‘쫓겨난 며느리와 솥구이

39) (18)의 615쪽.

40) 앞서 ‘내복에 산다’ 형의 설화처럼 처녀와 총각의 결연에서는 노구라는 존재가 불필요하지만, ‘쫓겨난 며느리와 솥구이 총각’에서는 양반 유부녀와 서민 총각의 결합이므로 매개자인 노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노구의 존재 유무를 중심으로 두 작품의 영향 관계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부분은 논지에서 벗어나므로 후속 연구로 미룬다.

총각' 형의 설화 속 주인공들의 결연에서 조선 후기 사회적 문제였던 노구와 그 업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노구는 한미한 도령과 정승댁 딸의 야합을 주선하거나, 양반 부인과 하층 남성의 결연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역할의 비중이 작아 노구와 주인공의 만남은 '우연'처럼 표현되어 있고, 주인공을 돕는 이유인 '주선하는 값'은 팔죽값이나 집을 지어주는 것으로 미화되며, '인정'은 수양아들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심지어 어머니로서의 면이 강조되지만, 이는 노구의 위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면을 축소할 뿐 노구 업 자체를 숨기지는 못한다. 오히려 노구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어느 정도 현실감을 유지하게 된다.

그렇다면 설화의 전승자들은 노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단명할 사람 배필 잘 얻어 살아나기' 형에서 정승 딸의 상징적 의미부터 살펴보자. 이 설화는 연명설화의 한 유형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연명설화가 〈수신기〉와 〈삼국지연의〉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언급했다. 두 책에 실린 내용은 소재나 모티프가 유사한데, 조안이라는 주인공이 관로에게서 단명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남두북두를 찾아가 구걸하여 연명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남두는 생명을, 북두는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다.⁴¹⁾ 소인호는 남두북두처럼 주인공을 연명시켜주는 존재가 우리 설화에서 변이된 양상을 고찰했는데, 문헌의 '정령 설화'에서는 특정한 장소의 이인으로 등장하고, 구비설화에서는 세 선비(저승사자)나 세 노인으로 변모되며,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중요시되면서 삼정승의 딸로 전이되었다고 보았다.⁴²⁾ 실제 이야기에서 삼정승의 딸이 주인공과의 첫 만남에서 주역이나

41) 정규복, 「연명설화고」, 『어문논집』 11, 안암어문학회, 1968, 12쪽.

42) 소인호, 「연명설화의 연원과 전개양상 고찰」, 『우리문학연구』 12, 우리문학회, 1999, 118-120쪽. 필자 또한 이 견해를 긍정한다. 다만 저승사자, 세 노인, 삼정승의 딸로 순차적으로 변모했다는 생각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독경을 읽고 있거나, 주인공이 호환으로 단명하는 경우 독경을 읽어 호랑이를 물리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연원을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한 인물로 두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본다. 특히 세 노인과 삼정승의 딸이 보여주는 숫자 삼의 공통점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더 나아가 저승사자와 노인 등의 남성적 존재에서 정승의 딸인 여성으로 변모된 데는 죽은 이를 살려내는 여신 신화의 영향도 생각할 수 있다. 무속신화 중 저승에서 생명수를 구해와 죽은 아버지를 살린 바리데기와 정수남을 살린 자청비는 그러한 예에 속한다. 돌함에 갇혀 아들 삼형제를 분만하는 당금애기 또한 죽음의 경지에서 삶의 세계로 나아가는 힘을 보여준다. 따라서 삼정승의 딸은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현실적 인물이면서 동시에 생명력을 고양시켜 주는 신적 존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의 단명은 ‘타고난 운명’과 ‘현실이 만들어낸 운명’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 설화의 연원으로 추정되는 〈수신가〉와 〈삼국지연의〉의 이야기를 참작하면, 주인공의 단명은 타고난 운명 즉 천명이 된다. 그러나 〈삼국지연의〉가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시대 선조 초⁴³⁾에 이 설화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전승되는 과정에서 조선 후기 노구 업⁴⁴⁾과 결합하면서 운명의 의미도 확대되었을 것이다. 노구 업이 성행한 조선 후기, 서민들은 가뭄과 홍수로 인한 역병과 기아, 과도한 노동 등으로 주어진 명도 제대로 유지하기 힘들었다.⁴⁵⁾ 따라서 전승자들에게 주인공의 단명은 주어진 운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현실의 재앙과 모순이 낳은 결과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주인공의 신분을 지체 있는 집안의 아들로 언급하면서

43) 정규복(1968), 앞의 논문, 19쪽.

44) 노구 업은 근대 초기에도 있었다. 이해조의 미완 소설 〈잠상태〉에서는 명문가 후손인 영랑과 천연동의 아름다운 아가씨의 만남을 주선하는 노구가 등장한다. 〈잠상태〉는 1906년 11월부터 1907년 4월까지 잡지 『소년한반도』에 게재되었다.

45)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역사비평사, 2004, 36~43쪽 참조.

도 권력과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한미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은, 현실의 재앙에 쉽게 영향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주인공이 단명을 극복하기 위해 가출을 하는 등의 주체적인 노력을 하는 점이나 단명 극복의 조력자로 부귀와 권력을 지닌 정승 딸이 등장하는 점도 ‘현실적인 고난이 낳은 단명’의 의미를 부각한다. 즉 주인공의 단명은 ‘예정된 운명’뿐만 아니라 ‘예정된 수명도 누릴 수 없는 현실’까지 상징하는 것이다.

주인공이 겪는 단명의 의미에 따라 노구에 대한 인식은 달라진다. 주인공의 단명을 예정된 운명으로 보고, 정승 딸을 이러한 운명을 바꿔줄 신이 한 존재로 여기면, 노구 또한 운명의 전환을 담당하는 신적 존재에 가깝게 된다. 노구, 즉 할머니의 원형인 위대한 여성인 여신에 대한 잔상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야기 속에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아이의 수명을 관장하는 삼신할미의 개념이 노구의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노구와의 만남도 ‘우연’이나 ‘운명’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의 단명을 사회적 문제의 결과로 보고, 정승 딸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부귀와 권력을 지닌 존재로 여기게 되면, 노구 또한 현실의 질곡을 벗어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는 남녀결연의 매개자가 된다. 이때 양반과 상민의 신분을 넘나드는 남녀결연은 상층 양반들에게는 위법이 되지만, 하층민들에게는 현실의 굴레에 대한 탈주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노구는 그 탈주를 가능하게 하는 자,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변곡점에 위치하는 자가 된다. 즉 주인공의 현실적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는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표3〉 ‘단명할 사람 배필 잘 얻어 살아나기’형의 노구의 이중적 의미

주인공의 운명	노구	정승의 딸
타고난 단명	우연히 만난 신이한 조력자	연명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
자연의 재앙과 사회적 모순으로 인한 단명	현실 탈주의 조력자	장수, 부귀, 권력

한편 ‘쫓겨난 며느리와 솥구이 총각’ 형의 설화에서 주인공은 부자가 되는 복을 타고났지만, 신분 때문에 남편에게서 버림받아 의지할 곳이 없는 처지이다. 여기서 그가 찾아간 산속의 가난한 집은 자신의 타고난 복이 실현되는 곳이면서, 솥 굽는 총각과 결연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노구는 타고난 복을 실현하게 해주는 조력자이면서, 동시에 버림받은 유부녀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자이다. 즉 타고난 복으로 우연히 생금을 얻는 데 중점을 두면 노구는 생금이 있는 곳과 연관되는 신이한 존재가 되고, 노구와의 만남에도 우연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버림받은 유부녀가 의지할 새 가정을 얻는 것은 물론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중점을 두면, 노구는 여인의 생존을 돕는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표4〉 ‘쫓겨난 며느리와 솥구이 총각’형 노구의 이중적 의미

주인공의 처지	노구 (노모)	솥 굽는 총각과 솥가마
타고난 복이 많음	우연히 만난 신이한 조력자	타고난 복의 실현
남편에게 쫓겨남	생존을 위한 조력자	남녀결연과 부귀영화

그런데 대다수의 이야기에서 매개자인 노구는 총각의 어머니로 등장한다.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양반 부녀자와 하층 남성의 결연은 결끄러운 소재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야기의 결말에서 백정 딸은 솥 굽는 총각과 결합하여 부자가 된 후, 오히려 전남편을 걱정하여 경제적으로 도와주거나 재결합한다. 이렇게 되면 백정 딸과 솥 총각의 인연은 엄밀하게 말하면 불륜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반 부인과 하층 남성의 결연에서 불륜을 덮고 인연과 운명으로 미화하기 위해 노구가 노모로 언급되었다고 본다.

설화에서 조력자 노구는 신격의 잔상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신이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조선 후기 신분을 넘나드는 불륜을 조장하는 현실적 존재로 인식된다. 이러한 이중적 인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첫째, 이야기판에서 노구는 현실적인 인물보다 신격화된 인물로 더 의미 있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앞서 ‘단명할 사람 배필 잘 얻어 살아나기’ 형과 ‘쫓겨난 며느리와 숯구이 총각’ 형의 설화를 합리적으로 분석하면, 남녀의 야합을 주선하는 노구의 업이 사건 전환의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구에 대한 묘사가 간략하고, 주인공과 노구의 만남에서 ‘우연성’이 강조되면서 노구는 현실적인 인물보다 신격에 가깝게 된다. 특히 주인공이 노구의 도움으로 비현실적일 만큼 과분한 결과를 성취하는 것도 노구의 신이성에 일조한다. 이러한 노구의 신격화는 풍요기원의 대상이었던 고대 여신신앙의 잔상이 민간의 서사에서 꽤 오랫동안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여기에는 민간신앙에서 할미가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점도 한몫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소수자에게 노구는 처벌의 대상이 아닌 사회·경제적으로 공감되는 존재라는 점이다. 설화 속 주인공인 제 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미친한 신분의 여인은 평범한 삶조차 누릴 수 없는 사회적 소수자이다. 이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노구 업을 하는 늙은 여성에게도 해당된다. 설화에서 노구와 주인공의 관계는 따뜻하고 정겹게 그려진다. 노구는 찾아온 주인공을 선뜻 맞이해주고, 주인공의 사연을 들은 후 그를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다. 주인공 또한 단명할 아이의 경우 노구와 수양모자의 관계를 맺고, 쫓겨난 며느리는 노구와 고부 관계가 된다. 이러한 연대감은 서로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설화의 전승지는 주로 주인공과 입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노구에 대한 주인공의 태도는 바로 전승자들이 노구에 대해 느꼈던 공감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승자들의 노구에 대한 태도는 지배담론을 벗어나기가 힘들다. 상층과 하층의 신분을 넘나들며 남녀의 불륜을 조장한 노구 업은 그 비윤리성으로 인해 법으로 처벌받았다. 지배층의 입장에서

노구의 음행 조장은 표면적으로 강상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이면적으로 신분적 위계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였으므로 처벌이 필요했을 것이다. 다만 설화에서는 노구에 대한 위법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발견할 수 없는데, 그것은 노구의 처지를 공감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고 노구 업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노구의 존재감을 축소시키거나 다른 존재로 표현한다. 이는 설화 전승자들조차 노구에 대한 사회적 지배담론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5. 결론

이상으로 ‘단명할 사람 배필 잘 얻어 살아나기’ 형과, ‘쫓겨난 며느리와 숯구이 총각’ 형의 설화에서 노구와 그 업이 형상화된 양상과, 노구에 대한 인식 및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설화의 노구는 한미한 서생과 고귀한 신분인 여성의 야합을 주선하거나, 유부녀와 가난한 서민 총각의 결혼을 매개하는 일, 즉 조선 후기 법적 처벌의 대상이었던 노구 업을 하는 여성이다. 텍스트인 두 유형의 설화 모두 운명과 관련되는데, 주인공의 운명을 타고난 천명으로 볼 때 조력자 노구는 신이한 존재로 인식되지만, 주인공의 운명을 사회적 모순의 결과물로 볼 때 노구는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존재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이야기관에서의 노구에 대한 신격화의 유효성, 노구와 서민들의 연대감, 그리고 노구에 대한 지배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찾을 수 있다.

노구 업을 하는 여성의 등장은 여성이 몸을 매개로 생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반영한다. 그 현실 속에는 임병 양란의 휴유증과 가뭄과 홍수로 인한 기아와 역병 등, 자연과 사회의 재앙으로 궁지에 내몰린 하층민의 고단한 삶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 고하를 넘나드는 노구 업은

지배층에게는 윤리적 기강과 신분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고, 따라서 먹고살기 위해 버둥거리는 하층 여성에게 형추와 도배의 무거운 벌이 내려졌다. 그러나 민간의 이야기판인 설화 속 전승자들의 태도는 다르다. 그들에게 노구는 자신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소수자이면서, 한 번쯤 부당한 현실의 탈주를 꿈꾸게 하는 매개자이다. 그래서 노구에 대한 신이함과 함께 그와의 연대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즘 매체와 정치의 헤게모니가 조장하는 젠더 갈등이 심각한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설화의 전승자들이 보여주는 성을 흥정하는 노구에 대한 태도는 눈여겨볼 만하다. 남녀의 차이와 윤리적 비판을 떠나, 사회적 발언권을 부여받지 못한 소수자들의 공감과 연대야말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다.

참고문헌

- 『고려사』, <https://www-krpia-co-kr-ssl.epoxy.pusan.ac.kr>
법제처, 『수교정례 올레요람』, 197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980~1992.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 김경미·조혜란, 『19세기 서울의 사랑 절화기담·포의교집』, 여이연, 2003, 1~255쪽.
- 김국희, 「사서(史書)를 통해 본 노구의 특성과 변이양상」, 『어문연구』 75, 어문연구학회, 2013, 164~187쪽.
- 김국희, 「조선후기 야담에 나타나는 노구의 특징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70, 한국문화학회, 2015, 39~67쪽.
- 김국희, 「조선후기 애정소설 속 ‘노구(老嫗)’의 의미」, 『어문학』 121, 한국어문학회, 2013, 137~160쪽.
- 김국희, 『할미서사의 원형과 갈래별 전개 양상』, 박이정, 2019, 1~276쪽.
- 박은애, 「한국 고대 토착신앙의 담당자」, 『신라문화』 38,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11, 115~134쪽.
- 소인호, 「연명설화의 연원과 전개양상 고찰」, 『우리문학연구』 12, 우리문학회, 1999, 113~125쪽.
- 송화섭, 「한국고대사회에서 성모와 노구」, 『백산학보』 64, 백산학회, 2002, 157 ~183쪽.
- 송화섭, 「지리산 노고단과 성모천왕」, 『도교문화연구』 27, 한국도교문화학회, 2007, 245~278쪽.
-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역사비평사, 2004, 1~371쪽.
- 이영수, 「혼인을 통한 운명의 변역-‘삼정승 딸을 얻은 단명소년’형 설화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67, 비교민속학회, 2018, 263~295쪽.
- 정규복, 「연명설화고」, 『어문논집』 11, 안암어문학회, 1968, 7~21쪽.
- 정재민, 「연명설화의 변이양상과 운명의식」, 『구비문학연구』 3, 한국구비문학회, 1996, 350~378쪽.
- 조길상, 「연명설화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123쪽.
- 최광식, 「삼국사기 소재 노구의 성격」, 『고대사학회』, 1981, 1~23쪽.

ABSTRACT

The Literary Imagery and Meaning of Nohgu-eop
in the oral narrative

Kim, Kuk-hee

In this study, the perception and meaning of Nohgu, who appears as a helper in the relationship of the main character, was analyzed using the folktale "A short-lived man gets a wife and lives well" and "an ousted daughter-in-law and a charcoal-grilling bachelor" as texts. In the tale Nohgu arranges an un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to help the main character overcome his fate. Nohgu in the tale "A short-lived man gets a wife and lives well" is in a position to arrange a meeting with the daughter of the Jeongseung family so that the protagonist in danger of short-lived life can survive, and in the tale "an ousted daughter-in-law and a charcoal-grilling bachelor" is in a position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lled baekjeong daughter-in-law and a bachelor who sells charcoal. The hardships faced by the main characters in the narrative can be divided into the results of natural fate and social contradiction. When helping to overcome the former, Nohgu is recognized as a divine being, but when helping to overcome the latter, Nohgu is recognized as a realistic and reflective person.

Those who carried out Nohgu-eop in the late Joseon Dynasty were severely punished by torture hitting shins and exile to the isl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uling class, strong regulation would have been needed because the Nohgu-eop was ostensibly contrary to the ethics and threatened the hierarchical order of status. However, in the story, Nohgu is a neighbor without a means of living, and is a divine being related to the faith of Grandmother. The in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which she arranged, was considered an interest in a class deviation. On the other hand,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storytellers,

Nohgu is not subject to punishment, but it brings social and economic empathy, which can be seen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Nohgu and the main character in the story.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escape the discourse of control over Nohgu, so the performance of Nohgu is reduced, and the Nohgu-eop is decorated as if it were a coincidence.

Key Words Nohgu, Nohgu-eop, Short life, Illicit union, a charcoal-making bachelor, an ousted Baekjeong's daughter

논문투고일: 2022.07.20.
심사완료일: 2022.08.06.
게재확정일: 2022.08.08.